

“내”가 아닌
 “우리”가 꿈꾸는 세상!
비에프월드가 함께 합니다.

축복을 흐르게 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희망의 씨앗을 심는 곳
비에프월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구촌 곳곳의 깊주림에 허덕이는 친구들을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반찬투정할 때
 지구 반대편 친구들은 밥 한끼를 먹지 못해서 굶어야하고,
 우리가 새옷 갖고 싶다고 투정부릴 때
 지구 반대편 친구들은 맨발로 학교에 가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기 싫다고 할 때
 교실도 없는 곳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한사람, 한사람에게서 시작된 작은 나눔은
 우리 지구촌에 큰 희망과 축복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비에프월드와 함께 해 주세요.

- 2013. 1 비에프월드(B.F.World)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217
 • Tel. 031-873-1691, 070-4271-9646 Fax. 031-873-1692
 • <http://bfworl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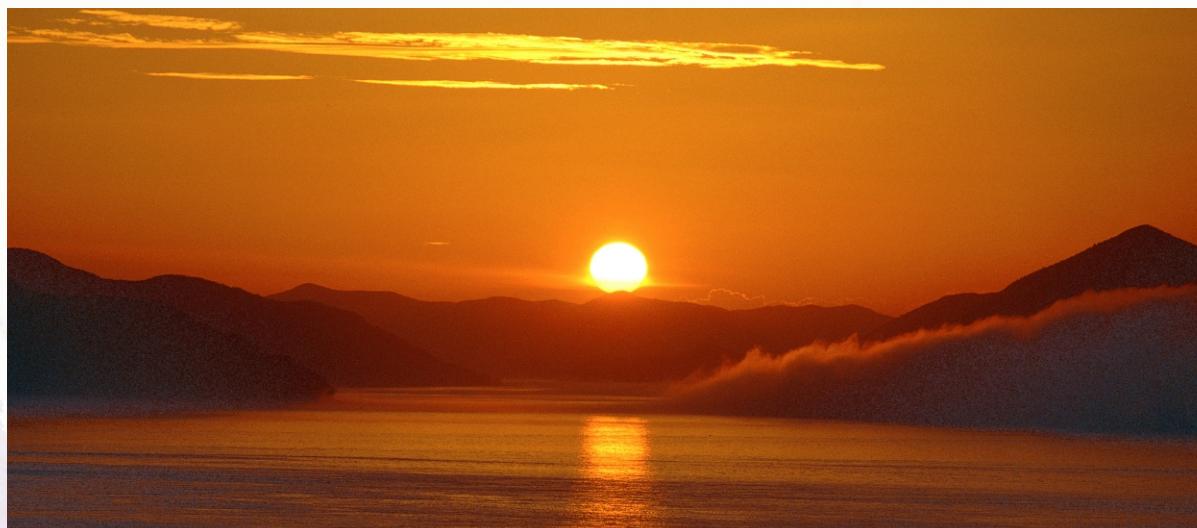
BFW
Blessing Flowers World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의 지구촌 이야기
B·F World

2013. 1 Vol. 4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의
 지구촌 이야기
BFW
 Blessing Flowers World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의 지구촌 이야기



비에프월드는 사랑과 축복입니다.



Blessing Flowers World

발행처 사단법인 비에프월드

발행일 2013년 1월

발행인 최남수

편집 비에프월드 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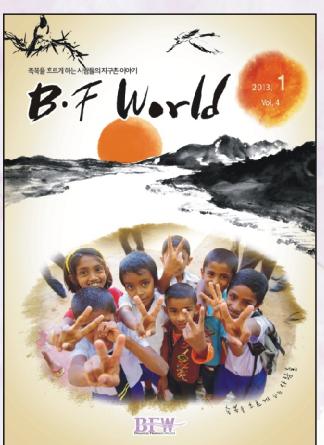
전화 031)873-1691, 070-4271-9646

팩스 031)873-1692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217(광명비전센타 내)

홈페이지 www.bfworld.org

디자인제작 SM크리에이티브 Tel 02.2265.0986



■ 표지설명

희망을 노래하는 “꿈의 학교”

Contents 2013. 1 Vol. 4

- 03 감사의 글** 비에프월드 이사장 최남수
- 04 비에프월드 더 큰 비전을 향하여...**
- 06 필리핀에서 날아온 편지~~~** 필리핀 칸드리크으로 부터
- 08 LOVE 米 사랑의 선물상자 나누기**
- 10 희망멘토링! 아이들의 꿈**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3학년 최은희
- 12 주택리모델링 자원봉사활동 후기** JBN 구자범 대표
- 14 함께 나누어요** 후원자명단
- 15 비에프월드 재정보고** 후원신청서
- 16 비에프월드 소식**

감사의 글

“2013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축복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비에프월드(B.F.World) 이사장 최남수

유난히도 추운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한 관심과 도움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계절입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니 마음이 뭉클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것 하나까지 나누겠다고 함께하며 매순간마다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비에프월드(B.F.World)는 지구촌 빈곤의 악순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더욱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비전제시와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NGO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2013년은 비에프월드(B.F.World)에 좀 더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실천으로 오늘보다 더 풍성한 내일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더 많은 곳으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비에프월드(B.F.World)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FW



비에프월드! 더 큰 비전을 향하여 !!!

B.F.World! Toward the greater vision

비에프월드는 지난 12월1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더 큰 비전을 향하여”라는 표어아래 비에프월드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미래비전제시를 위해 각국대사님들과 세계70개국에서 오신 지도자 168명을 초대하여 사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미국 아주사 폴리텍대학 존윌리스 총장님은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나누어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속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 올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나눔은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나눔을 실천할 때 축복은 흘러흘러 지구촌 곳곳에 큰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구촌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김새는 다르지만 한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꿈이고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2013년 비에프월드는 더 큰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를 것입니다. 





Philippines

ASIA

필리핀에서 날아온 편지 ~~~



Hand in Hand 아동결연

Dear B.F.W.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introduced my self. My name is Keendrick B. Funtan, 14 years of age, studying in High school, one of the member of Kahayag church. I'm also a child of god.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Blessing Flower's World for the support that you have given to us. I send you this letter to let you know that we really appreciate your good deeds. through your project many people can benefit from it especially the unfortunate ones.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oject (hands in hands).

When I was a young, I dreamed to become a teacher. I thought it was impossible because of financial issues. But you were a blessing that came into our life. We are nine in the family including my parents. I have seven siblings, four girls and 3 boys. I am the fifth one. The six of us are still studying so my parents need to double their effort to support us. Life of Camotes Island are not very easy because the people living in this place are poor enough to buy foods, but when I meet B.F.W. I'm so happy not only me but also the other people. It's a great blessing.

When I meet B.F.W. and my sponsor, I eat so happy and blessed because they are a great help to us. They served as an instrument where in I can now pursue my studies and able to help my family in their future. Mr. Kim Tae Chung is my sponsor, he brought changes into us. His grace is a miracle that helped us in ordered to pay our contributions in school.

My vision in life is to become a pedagogue shall we say a great teacher. This scholarship is a stool towards to success. When I was a young my goal in life is to commit my desire. Soon to be I will be in collage I want to study in U.P. University of Philippines. This school is very nice, so in my mind these scholarship is a gift that come from God. this is answer of prayer.

My determination in life is to helping other people having a poor life. Because in Philippines many beggar, wolf, orphan and other. So if I can finished my studies, I can commit my desire. like B.F.W helping other country.

So thank you very much B.F.W for your project. May you be blessed and continue your good deeds. thank you!!!

From: Keendrick
in Camotes Island.

To: B.F.W.



BFW 축복을 흐르게 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희망의 씨앗을 심는 곳



안녕하세요

먼저 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의 이름은 킨드릭입니다.

나이는 14살이고 고등학생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비에프월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Hand in Hand 이동후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특히 저와 같이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는게 꿈이었지만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비에프월드 때문에 저에게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는 부모님과 형제7명해서 9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형제중 6명은 아직 학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합니다.



이곳 필리핀 가보티스섬은 가난하기 때문에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비에프월드를 만남으로서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은 제가 학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가족의 미래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이 저의 후원자이십니다.

후원자님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인생의 비전은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후원금(장학금)이 성공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저는 곧 며지않아 대학에 가게됩니다. 필리핀 UP대학에 다니고싶습니다.

이 대학은 아주 훌륭합니다.



제 인생에 결단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필리핀에는 거지와 고아들이 많습니다.

제 학업을 끝마치면 저의 꿈도 이를 수 있습니다.

마치 비에프월드가 다른 나라를 도와 준 것처럼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선한일에 축복이 있길..고맙습니다.

2012년 12월 필리핀에서 킨드릭으로부터

2013 Jan • 06
07



의정부 시청 무한돌봄행복센터, 장애인 가정, 호원2동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홀로 거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으로....
우리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려보니
하루의 수고가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BFW 축복을 흐르게 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희망의 씨앗을 심는 곳

Love 米 사랑의 선물상자 나누기



계속되는 영하의 추운 날씨는 기난한 이웃들의 체감온도를 더욱 낮춥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추운 날씨로 인해 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해보였습니다.

비에프월드(B.F.World)는 한파가 몰아치던 12월 중순,
아침 일찍부터 나온 자원봉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사랑의 선물상자를 포장하였습니다.
쌀, 김, 멸치, 식용유, 부침가루, 라면 그리고 따뜻한 양말까지....
포장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분주하고 바쁘게 보였지만
얼굴은 참으로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포장된 선물상자는
의정부 시청 무한돌봄행복센터, 장애인 가정, 호원2동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홀로 거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으로....
우리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려보니
하루의 수고가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어느새 소복소복 쌓인 눈은 온통 세상을 하얗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하얀 세상만큼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도우며 나누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FW



아이들과 하나되다

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3학년
최 은 희

“만남들을 통해 나 자신이 더 성장해가고 있음을 느낀다.
한 가지 배운 것은, 내가 먼저 웃는 얼굴과 열려 있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아이들도 적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고 착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엇나가는 아이들은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서라는 누구나다 아는 말이
실제적으로 와 닿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 아이들이 엉나기지 않고 밝고 착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힘쓰신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상담 선생님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지난 5월, BF World 간사님께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중학생들과 함께하는 멘토링이라니.. 아무리 DTS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만해져 있는 나였다 할지라도, 한 단어가 나를 혼쾌히 멘토링에 참여하겠다고 밀쓸드리지 못하고 망설이게 만들었

다. 그건 바로 중.학.생. 나는 중학생에 대해 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무서운 아이들이나 동생에게 가끔씩 듣는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철없는 애들이 너무 한심스러웠다. 그래도 나름 모범생이었던(?) 나조차 중학생 때 가졌던 생각과

BFW 축복을 흐르게 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희망의 씨앗을 심는 곳
이 참 예뻤다. 셋이서 다양한 활동들은 많이 하다보면 갈등도 생기는 게 보통일텐데, 싸우는 일 없이 서로를 더욱 세워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7살 밖에 많지 않은 나를 ‘쌤’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라주는 것도 너무 고마웠다. 내가 생각하는 중학생이라면 그냥 날 무시하고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야 맞는 것인데 말이다. 물론 솔직히 말해, 이제 내가 중학생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 나 자신이 더 성장해가고 있음을 느낀다. 한 가지 배운 것은, 내가 먼저 웃는 얼굴과 열려 있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아이들도 적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고 착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엉나가는 아이들은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서라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 실제적으로 와 닿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 아이들이 엉나기지 않고 밝고 착한 모습으로 남아 있게 힘쓰신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상담 선생님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앞으로 수민이, 윤리, 주은이가 바리스타로, 선생님으로, 모델로, 또는 또 다른 꿈을 이룬 모습으로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BFW**





글 | JBN 구자범 대표



밤하늘의 별처럼 / 서두르지 말고 / 그러나, 쉬지 말고 / 우리는 각자 인생의 부채를 갚아가야 한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쓴 이 작품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의 자연과 공전처럼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누군가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수년 전에 BFW봉사단에서 1호 주택리모델링 사역을 할 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혼자 사는 할머니의 10평 남짓한 낡은 집을 아침 8시부터 늦은 밤까지 리모델링 전문 봉사자와 일반봉사자 등 20명이 함께 사역하였다. 폐품 수집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할머니의 집은 쓰레기만 1톤 차량 두 대 분이 나올 만큼 지저분했다. 일반 봉사자들은 골목 가득히 널려 놓은 쓰레기며 가구들을 일일이 물로 세척하였고 전문 봉사자들은 도배, 장판, 전기, 수도, 싱크대, 목공, 지붕보수 등을 맡아했다. 자원봉사를 시작 할 때에 이웃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는 시선으로 보았지만 오후부터는 음료수도 사오며 친밀감을 보여 주었다. 밤 9시가 넘어서 주택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에 쓰레기더미로 가득 찼던 집은 깨끗하고 멋진 새집으로 탈바꿈하였고 할머니도 이웃 주민들도 우리 봉사단원들도 모두 감탄을 지어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행복한 프로젝트에 투입한 비용이 불과 137만원 밖에 안 들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원부자재의 구입 비용 이외에 모든 가공과 인력을 우리 봉사단원들이 감당하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주택리모델링을 독거노인 할머니가 유상으로 진행 하였다면 최소한 몇 배 이상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을 것이다. 우리 봉사단원들은 각자의 달란트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고 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대가로 얻었다.

현재 우리의 삶은 극소수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승자

독식사회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능력만큼 일하고 보상 받는 사회구조가 낳은 결과다. 능력 있는 조직과 인력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냘수록 누군가는 직장과 일자리를 빼앗기는 모순된 구조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단기간에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도시의 그늘진 곳에 노숙인들과 극빈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인류는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았다. 마을에는 공동우물이 있었고 산과 들판에 널린 열매와 결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공유하였다. 자기가 충분해지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뜻이었다. 승자독식의 현대사회 구조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는 더욱 확대 되어질 것이다. 햇빛과 바람 그리고 공기처럼 의료, 복지, 교육과 최소한의 생존권에 필요한 의식주는 최대다수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살벌한 폭동과 무질서한 혼돈을 겪으면서 공멸해가고 말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이 같은 새로운 공유의 시대에 매우 유익한 솔루션이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의 재능을 기부하고, NGO 단체들은 정직한 청지기의 뜻을 감당한다면 사회적 약자와 극빈계층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 위의 주택리모델링은 그러한 좋은 사례이다. 능력 있는 자들만이 보상받는 사회에서, 능력만큼 봉사하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서 BFW와 같은 NGO 단체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신을 기대하는 바이다. (JB) BFW

